

AI에 닭 1800만마리 살처분...고기·계란값 폭등 어찌나

산란계 1100만마리·육계 563만마리 처분 특란 소비자가 25% ↑...설 전까지 수입 추진 닭고기 kg당 5859원...평년 대비 11.7% 비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살처분된 닭도 1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금액이 된 계란에 이어 닭고기 가격도 점점 오를 것으로 점쳐지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AI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바이러스 차단을 위

해 살처분된 산란계(계란을 낳는 닭)는 1100만3000마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식육용 닭인 육계는 563만1000마리를 처분했다. 육계 병아리를 낳는 종계(어미닭)와 토종닭은 각각 102만5000마리, 64만3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와 육계는 각각 6400만 마리, 7400만 마

리이다. 짧은 기간에 2000만 마리에 가까운 닭이 대거 살처분되면서 닭고기와 계란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육계에 비해 자동화 시스템이 덜 갖춰진 산란계 사육 시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2일 기준 특란 10개 당 소비자가격은 2203원으로 평년 대비 24.8% 올랐다. 산지 가격은 45.8% 뚝 1697원으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육계의 소비자가격은 kg당 5859원으로 11.7% 비싸졌다. 산지 가격은 3.5% 오른 1402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설 전까지 필요한 물량을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된 부정 유통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닭고기의 경우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불안한 시장 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한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기름값이 안내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9원 오른 L당 1447.2원, 경유 가격은 7.8원 오른 리터당 1247.6원을 기록했다.

광주 여행업계 "코로나 1년 매출 '0', 생존권 보장하라"

광주지역 여행업계가 "중소여행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여행업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로 1년 이상 매출 '0(ZERO)'라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을 시행하라"면서 "공공 일자리사업에 여행사대표를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각 구별 공유 오피스 지원 및 랜선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런 요구 조건을 정부와 광주시에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채본부

"대세는 친환경"...편의점 CU, 생수 라벨 없앤다

상품 정보는 병뚜껑 밀봉 라벨지에 인쇄

편의점 씨유(CU)가 업계 최초로 모든 자체 브랜드(PB-Private Brand) 생수 패키지를 무라벨 투명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25일 밝혔다. CU는 "이번 무라벨 투명 PB 생수는 고객이 보다 간편하게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게 돕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했다. 가장 먼저 무라벨 패키지가 적용되는 HEYROO 미네랄워터 500ml(600원)는 상품 전면에 부착되던 라벨이 제거된 것은 물론 브랜드 조차 인쇄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으로 출시된다. 고객이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생수 뚜껑만 CU 특유의 보라색을 넣었다. 상품명 및 필수 표기 사항인 용량, 수원지, 무기질 함량 등 상품 정보는 병뚜껑 밀봉 라벨지에 인쇄된다. 이 방식은 투경을 개방하는 동시에 라벨이 분리돼 분리수거가 쉽게 하고, 라벨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 양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다음 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CU는 올해 1분기(1~3월)에 PB 생수 전 상품(10~20)에 무라벨 투명 페트병을 적용할 계획이다. CU 관계자는 "CU는 이미 대부분 PB음료에 절취선을 삽입하여 제거가

코로나로 바뀐 설 선물 트렌드는... '집밥·가성비'

식품업계, 실속과 집밥 트렌드 앞세운 선물세트 잇따라 출시 코로나19 여파로 건강 관심 ↑...저염·유기농 제품 등도 선보여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의 트렌드는 집밥과 가성비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국내 식품업계도 실속과 집밥 트렌드를 앞세운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였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HMR)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집밥' 트렌드 확대에 맞춰 HMR 선물세트 종류를 7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만두, 남도떡갈비, 모듬잡채 등으로 구성된 '비비고 풍성한 한상차림' 세트, 비비고 '한우 사골곰탕'과 '왕고자', '미정당 떡국떡' 등으로 구성된 떡국 한상차림 등이 주요 제품이다. 설 선물세트 인기 가 높은 '스팸' 세트는 실속과 가성비를 앞세웠다.

'스팸 8호 시리즈'와 '스팸 스위트 1호'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대상도 가성비로 앞세운 1만원 미만 제품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2021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청정원의 인기 제품을 엄선한 '청정원 종합세트', 햄과 참치 등으로 조합된 '우리팜 선물세트', 햄과 유제품을 함께 구성한 '팜고급유 세트' 등을 다양한 가격대로 선보인다. 또 집밥족 증가로 높아진 고급유와 장류 수요에 따라 ▲고급유 세트 ▲프리미엄 장류세트 등을 내놓고 집콕 트렌드를 겨냥한 '청정원 집콕세트'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동원F&B는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

심이 높아진 만큼 '동원참치'와 '리첸' 선물세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참치 150g에는 단백질 28g이 들어있다. 성인 단백질 일일 권장량 55g의 절반 이상을 동원참치 한 캔으로 섭취할 수 있다. 참치 단백질 함량은 전체 영양성분의 27.4%로 생산 중 가장 높다. 돼지고기(19.7%), 쇠고기(18.1%), 닭고기(17.3%) 등 육류와 비교해도 많다.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을 비롯해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리첸은 짭짤 강한 제품 일색이었던 기존 국내 캔햄 시장에서 저나트륨 건강 콘셉트로 시장 판도를 바꿨다. 2018년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20% 이상 낮췄다. 상하농원은 공방 장인의 정성과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상하농원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상하농원 설 선물세트는 공방 장인이 정성껏 만든 햄·과일·빵·발효수제 공방제품으로 구성된 '공방 선물세트'와 자연의 건강함을 담은 생선물을 엄선한 '농산물 선물세트' 등 40여종으로 마련됐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도 건강함을 앞세운 가성비 높은 제품을 다음달 4일까지 판매한다. 대표상품은 '유기농 사과·감전매 세트', '제주 흑우 선물세트', '한우정성세트', '복숭아 병조림 선물세트'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트렌드와 높아지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집밥과 실속 중심의 선물세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산업연 25년, 제조업 업황 개선에 무게...반도체 '맑음'

철강·디스플레이·자동차 등 대부분 '긍정적'

국내 제조업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25일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 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매달 예프엔가이드,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항목별로 정량화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산출하고 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것

산업연 "전문가들, 제조업 업황 개선에 무게...반도체 '맑음'"

주요 부문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25p 상승한 143을 기록하면서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장비와 소재 부문은 각각 2p, 12p 오른 124, 118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70), 철강(138), 디스플레이(133), 전자(131), 자동차(126), 섬유(116), 화학(109) 등 대다수 업종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조선(128)과 기계(117)는 전월보다 각각 13p, 4p 하락했지만 기준은 넘겼다. 김민정기자

'음성 통화→텍스트로'...실시간 바꾸는 앱 나왔다

아틀라스랩스, 스위치 안드로이드 정식 버전 출시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아틀라스랩스는 통화 내역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해 저장·관리하는 앱(스위치)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공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스위치 안드로이드 정식 버전은 ▲기본 전화 기능 ▲전화 녹음 ▲통화 내용의 실시간 대화형 문자 기록 ▲통화 기록 조회·분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화 내용을 녹음과 동시에 문자로 실시간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음성 데이터 관리 기능도 추가됐다. 앱 이용자들은 PC에서도 ▲태그 ▲